

드리고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개역, 신명기 12:6-7]

지난 주에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치른 아이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지요?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수고를 많이 했고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는 어른들도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누가 제일 수고를 많이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험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에게 점수를 왕창왕창 주면 하나님도 마음이 편하실 것 같은데 그런 학생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빼 먹고 죽어라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시험을 치러 갔는데 이런 학생들이 시험 잘치고 점수 잘 나오게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잘 안 나오도록 할지 하나님께서도 참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자기네끼리 ‘수고 많이 했지?’ ‘뒤에서 일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좀 섭섭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수고하셨다는 것을 아는 가정이라면 참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이 짝막한 구절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3부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오늘 제목 ‘드리고, 먹고, 즐겨라’ 입니다. 1부는 드리고, 2부는 먹고, 3부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본문에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1부 ‘드리고’ 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져다가 드리라고 합니다.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께 드려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합니까? 제일 처음 나온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보통 우리의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희생은 속죄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고 드리는 제물이 희생제물입니다. 십일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헌신의 의사가 있든지, 범죄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입니다.

제물이 많고 적은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것이 ‘하나님만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상에게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번제고 희생이고 십일조고 거제고 서

원제고 낙헌제고 간에 전부 하나님께 가져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예물도 하나님께 가져오고 상한 심령도 하나님께 가져오고 헌신할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져오고...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애깁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좀 많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감사할 일이든지 전부 내게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욕심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대목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넌 내 거야, 너 가진 것 전부 내 거야’ 이 말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가져오라는 하나님은 욕심이 많은 분이시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탐내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탐내는 것은 내 돈, 내 열심,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탐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탐이 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끈적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즐거워도 슬퍼도, 무슨 일이 있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선물을 가져다 줄 때만 좋아합니까? 자식들이 힘들어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게 하더라도 자식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고, 어떤 일이든지 사랑하고 도와주리라는 마음이 담긴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눈물이 펄펄 쏟아져도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세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하며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렸으니 나머지 십 분의 구는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지요? 예배의 두 번째 ‘먹고’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렇습니다. 1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2부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있으면 얹히지 않을까요?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먹어도 얹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식사하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다양하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제물은 화목제물 뿐입니다.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교제를 나누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새 밥 못 먹는 사람 있냐?” 그러면 친하게 지내기 싫다는 뜻입니다. “밥 안 사나?” 하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데도 악착같이 안 사는 사람 있죠?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밥 안 사나?” 왜 그래요? 좀 친하게 지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달라붙어서 그래?” 머리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많은 계명을 다 주신 후에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뭐 했죠? 하나님 앞에 청옥같이 꼭 퍼져 있더랍니다. 그렇게 청명하더랍니다. 거기에 백성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뭐 했죠?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계명을 다 준 후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후에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지속한다는 뜻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면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넘어가지도 않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아이들 표현들 빌리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만 여기시면 안됩니다. 하나님과 정말 정말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즐거워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드렸으니, 이제 내 의무는 다 했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드렸으니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십 분의 구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누가 즐겁죠?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입니다. 누가 즐겁죠?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여호와께 드리고'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는 우상이든 귀신이든 갖다 바치고 나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7절 중간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배의 3부는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과 함께' 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을 참고하면 종도, 가난한 자도 고아나 객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3부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뭐!' 그래서 예배만 참석하고 팽하니 사라집니다. 그것은 1부밖에 참석 안한 것입니다. 3부까지 참석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건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도간의 교제는 좀 질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외롭게 살거나 혼자 쓸쓸한 느낌으로 사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한 새 중에 올빼미나 부엉이가 있습니다. 올빼미나 부엉이는 컴컴한 곳에서 항상 홀로 지냅니다. 눈은 또 어떻습니까? 슬픈 눈으로! 소리는 어때요? 구슬프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과 다 떨어져서 홀로 슬픈 노래나 부르고 외롭게 눈만 커다랗게 뜨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술개나 매도 부정하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혼자서 자기 먹을 것만 찾으러 돌아다니는 새지요.

반대로 성도는 형제를 돌아보며 형제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지 뭐 보기 싫은 저것들 보러 왔나?' 그렇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수준차가 나서 어떻게 같이 놀아?' 그 수준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수준차를 인정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수준차를 따지고 있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평소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잠깐 드리고 나면 이 장소가 난장판처럼 시끌벅적할 겁니다. 이 난장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웃으십시오. 제가 심각하나요? 죄송합니다. 제 댐에는 생각하느라고 그런 모양인데 예배 드리는 우리 표정이 밝아야 합니다. 올빼미 흉내 내지 마시고 마음 놓고 형제와 웃으며 지내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